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심리적 요인

조영문¹, 강승랑^{2*}

¹동신대학교 한의과 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²한려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Young-Mun Cho¹, Seung-Lang Kang^{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ly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대상자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J와 S시, G광역시에 소재한 16곳의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60세 이상 남녀노인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공적 노화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자아통합감($\beta=.372, p<.001$), 문화역량($\beta=.410, p<.001$),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변수인 관계성($\beta=.168, p=.003$)이 71.1%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므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관계성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심리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노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dict sociocultural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The participants were 187 elderly people aged at least sixty who used 16 elderly welfare centers in G metropolitan city and J and S city from december 2018 to january 2019. Data analysis was done by using SPSS WIN 23.0 program, for one-way ANOVA, independen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is stud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basic psychological need, ego-integrity, cultural competence. The ego-integrity($\beta=.372, p<.001$), cultural competence($\beta=.410, p<.001$), relationship($\beta=.168, p=.003$) have a 71.1% explanatory power for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ciocultural psychological programs to promote self-integration, cultural competence, and relationship for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Key Words : Successful Ag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Ego-Integrity, Cultural Competence, Elderly

*Corresponding Author : Seung-Lang Kang(tmdfkd1495@naver.com)

Received August 12,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15,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3%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1]. 노인의 기대 수명 또한 2010년 남성 76.7세 여성 82.3세, 2015년 남성 79세 여성 85.2세, 2016년 남성 79.3세 여성은 85.4세로 증가 추세에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2016년 129만 4천 가구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 가구 386만 7천 가구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1인 가구의 비중 중 65-69세는 감소하고 8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1]. 이처럼 전 생애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가족의 세대 간 인구구성 변화로 노인은 생산력 저하와 역할상실 및 사회적 소외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사회·심리적 위축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2].

성공적 노화는 개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적, 사회·심리적, 환경적 상황에 스스로가 성공적으로 잘 적응해 가면서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것으로 건강상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이다[3]. 성공적 노화는 긍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태도로,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이며,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 상호작용한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내린 결정의 축적과 관련 있다[4]. 그러므로 우리사회의 성공적 노화는 초고령사회를 이룰 노인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화과정에 잘 적응하는 심리·사회적 적응상태에 따른 삶의 안녕감 상태이다[5]. 최근 선행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사회·심리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3,6], Jeong(2014) 등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자녀수, 직업, 연령, 주거형태 등과 신체적·인지-기능적 변인인 건강상태, 신체기능, 인지전략 등이 있으나, 신체적·인지-기능적 변인보다는 심리적 안녕감, 지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등의 사회·심리적 변인의 관련성이 더 높았다[7].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3].

그러므로 인간은 노화와 질병으로 신체적 기능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일생을 통한 사회·심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경험에 의한 내적 성숙으로 삶이 긍정적

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3]. 따라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건강상태에서 점차 사회·심리적 특성 등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으며, 노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이 긍정적 삶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7]. 그러므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따라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고, 내재적 동기는 사회적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 능력을 발달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이룬다[8]. 자율성은 자신이 부여한 가치와 흥미에 근거하여 행동을 선택하고 조절해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받는다고 지각될 때 충족되는 욕구이며, 유능감은 지속적인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자신감에 대한 욕구이다[8,9]. 관계성은 개인이 타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족을 느끼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이다 [8]. 선행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10,11],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율적인 삶, 자기효능감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다[12].

인간은 일생에 걸쳐 사회·심리적 발달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수용하는 자아통합을 이루게 된다. 노인의 자아통합은 노화과정에서 계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면 자기계발의 욕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아실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13]. 노인은 노년기의 성공적 적응으로 궁극적인 심리적 안녕을 이루고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된다. 자아통합이 이루어진 노인은 자신의 선택한 삶과 삶의 결과를 인정하고, 과거의 삶을 수용하며 만족하며, 지속적인 자아실현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공포 없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수용한다. 그러나 자아통합을 실패한 노인은 절망에 빠지고 죽음 불안과 공포감이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통합이 높은 노인은 자아통합이 낮은 사람에 비해 성공적 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2,14]. 선행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은 사회적지지, 사회적 활동, 우울상실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그러므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기본심리욕구와 자아통합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는 인간이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있는 양식으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의식과 활동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문화 속에서 인간은 의식과 행동의 범위

를 제한하며 살아간다[15]. 그러므로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상호작용 하는 문화역량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이며,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요소이다[16].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와 노인 1인가구의 증가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상실됨에 따라 확장된 노년기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노인의 문화역량은 노년기 삶의 질에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17,18]. 따라서 감정과 문화 등이 강조되는 정보화 시대에 길어진 자유 시간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한 요소로 노인의 문화역량에 인식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문화·심리적 변인으로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 변수들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간호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문화·심리적 중재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첫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노인의 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까지 J도, S특별시와 G광역시에 소재한 16곳의 노인종합

복지센터, 노인종합대학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남녀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인지장애나 치매, 기타 정신질환 및 신체적 장애가 없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내용을 읽고 직접 답할 수 있는 자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 한 자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 연구에서 중간효과(effect size) .15,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1-\beta$)=.90, 예측변인 13개(인구사회학적 특성 9개, 기본심리욕구, 자아정체감, 문화역량)로 한 결과 162명이 나와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87명으로 하였다. 또한 배부된 총 187부의 설문지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설문 중 설문작성을 거절한 23부를 제외하고 164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Kim과 Shin(2005)이 개발한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였다[19]. 이 척도는 총 30문항 4개 하위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13문항,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8문항,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3문항,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 까지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4 이었으며[19],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 이었다.

2.3.2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 이론(SDT)에 근거하여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욕구이다[9]. 본 연구에서는 Ryan과 Deci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Jung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9,20]. 이 척도는 3개 하위 요인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y), 관계성(relatedness)으로 각 요인 당 6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Cronbach's alpha .86 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 Cronbach's

alpha는 자율성 .71, 유능감 .86, 관계성 .79 이었고 [20],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5 였으며, 각 요인별로 자율성 .65, 유능감 .88, 관계성 .75 였다.

2.3.3 문화역량

문화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창조하고 감상하고, 향유 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전문화된 체계로 본 연구에서는 Kwak 등 이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문화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21]. 이 척도는 3개 하위 요인인 생활 문화역량, 예술 문화역량, 사회 문화역량으로 각 요인 당 9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1점에서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역량의 Cronbach's alpha .98 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 Cronbach's alpha는 생활 문화역량 .95, 예술 문화역량 .97, 사회 문화역량 .96 이었으며[15],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7로, 각 요인별로 생활 문화역량 .94 예술 문화역량 .93, 사회 문화역량 .93 이었다.

2.3.4 자아통합감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현재 상황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과 지나간 일생에 대한 수용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평온하게 느끼는 태도와 죽음에 대한 수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노년기의 긍정적인 적응결과를 의미한다[22]. 본 연구에서는 Kim(1989)이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통합감 척도를 토대로 Park(2016)이 수정 보완한 자아통합감 척도를 사용하였다[22,23].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응답기준은 '전혀 아니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1점에서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 이었다.

2.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윤리심의를 받고 승인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1040708-201811-SB-044).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장소 및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2018년 11월 J와 S시, G광역시에 소재한 16곳의 노인종합복지센터, 노인종합대학을 직접 방

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세부적인 조사 방법을 계획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로 사전에 교육된 1명의 연구보조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의 목적, 소요 시간,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설문조사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e test와 Dunnett(T3)로 하였으며, 비모수적 분석의 사후검정은 Rank cases 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성공적 노화와 관련변수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총 164명의 연구대상자 중 남자 64명(39%), 여자 100명(61%), 60세에서 69세가 113명(68.9%), 70세에서 79세가 44명(26.8%), 80세 이상이 7명(4.3%)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130명(79.3%)이 기혼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이나 사별이 31명(18.9%), 미혼이 3명(1.8%)이었다.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거주하는 대상자가 79명(48.2%),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45명(27.4%), 혼자 25명(15.2%), 자녀와 함께 거주가 15명(9.1%) 순으로, 자녀수는 3-4명이 78명(47.4%), 1-2명이 74명(45.1%), 5명 이상이 12명(7.3%)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6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이하가 21명(12.8%)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87명(53.0%)이 직업이 있었고, 한 달 용돈이 71만원 이상이 62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31만원에서 50만원이

Table 1. Difference in Successful Ag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in Elderly (n=164)

Categories		n(%)	Successful aging	
			M±SD	F/t(p)
Gender	Male	64(39)	110.20±19.18	0.66(.506)
	Female	100(61)	108.05±20.78	
Age(yr)	60-69 ^a	113(68.9)	113.13±20.37	†15.17(.001) **a>c
	70-79 ^b	44(26.8)	100.159±15.62	
	≥80 ^c	7(4.3)	94.71±19.73	
Marital status	Single ^a	3(1.8)	88.00±4.35	†34.38(<.001) **a,c<b
	Married ^b	130(79.3)	113.600±18.55	
	Divorce or Bereavement ^c	31(18.9)	91.16±16.09	
Living type	Alone ^a	25(15.2)	95.80±21.09	11.60(<.001) *a,d<b,c
	With spouse ^b	79(48.2)	110.48±17.34	
	With spouse & offspring ^c	45(27.5)	118.33±19.90	
	With offspring ^d	15(9.1)	94.00±14.07	
Number of children	1-2 ^a	74(45.1)	111.00±22.34	1.56(.213)
	3-4 ^b	78(47.6)	108.21±17.65	
	≥5 ^c	12(7.3)	100.25±20.14	
Education	≤ Elementary ^a	21(12.8)	96.33±19.25	10.13(<.001) *a,b<c,d
	Middle school ^b	33(20.1)	98.75±16.00	
	High school ^c	44(26.8)	111.43±19.50	
	≥ College ^d	66(40.2)	116.25±19.06	
Job	Have ^a	87(53.0)	115.94±17.76	5.12(<.001)
	Not have ^b	77(47.0)	100.92±19.80	
Allowance (10,000)	≤10 ^a	15(9.1)	92.46±14.93	†29.93(<.001) *a<e
	11-30 ^b	39(23.8)	98.46±18.66	
	31-50 ^c	41(25.0)	112.04±18.50	
	51-70 ^d	7(4.3)	111.42±16.82	
	≥71 ^e	62(37.8)	117.04±18.79	
Health status	Not very healthy ^a	4(2.4)	94.50±9.11	†45.52(<.001) *a,b,c,d<e
	Unhealthy ^b	20(12.2)	92.10±17.32	
	Average ^c	77(47.0)	107.80±17.61	
	Healthy ^d	45(27.4)	108.84±17.77	
	Very healthy ^e	18(11.0)	135.50±14.22	

†:Nonparametric test: Kruscal-wallis test, * Post-hoc: Scheffe test ** Post-hoc: Dunnett(T3)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41명(25.0%), 11만원에서 30만원이 39명(23.8%), 10만원 이하가 15명(9.1%), 51만원에서 70만원이 7명(4.3%) 순이었다.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140명(85.4%)의 대상자가 보통으로 건강하거나 매우 건강하다고 답변하였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연령(F=15.17, p=.001), 결혼상태(F=34.38, p<.001), 동거가족(F=11.60, p<.001), 학력(F=10.13, p<.001), 직업(F=5.12, p<.001), 한달 용돈(F=29.93, p<.001), 건강상태(F=45.52,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결과 성공적 노화정도가 연령에서 80세 이

상 그룹보다 60세 이상 그룹이, 결혼상태에 따라 미혼과 사별이나 이혼 그룹이 결혼 그룹보다 더 낮았고, 동거가족에 따라 배우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그룹이 혼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그룹보다 높았다. 학력에서는 초·중학교 졸업 그룹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이상 그룹이 더 높았으며, 한 달 용돈이 10만원 이하 그룹보다 71만원 이상 그룹이,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답변한 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성공적 노화 정도가 더 높았다. Table 1

3.1.2 성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자이통합감, 문화역량의 정도.

성공적 노화는 총점 150점 대비 평균 108.89±20.14 점, 기본심리욕구는 총점 90점 대비 평균 61.92±8.52점, 자아통합감은 총점 70점 대비 평균 50.71±8.93점, 문화역량은 189점 대비 121.09±32.40점으로 중간이상 이었다. 기본심리욕구의 각 하위범주는 각각 총점 30점 대비 자율성 21.97±3.72점, 유능감 21.14±4.31점, 관계성 22.44±3.46점으로 중간이상 이었다. Table 2

Table 2. Description of study Variables in Elderly (n=164)

Variable	Possible Range	Minimum-Maximum	M±SD
Successful aging	30-150	57-150	108.89±20.14
BPN	18-90	43-85	61.92±8.52
autonomy	6-30	12-30	21.97±3.72
competency	6-30	12-30	21.14±4.31
relatedness	6-30	15-30	22.44±3.46
Ego-integrity	14-70	30-70	50.71±8.93
Cultural competence	27-189	38-189	121.09±32.40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3.1.3 성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간의 상관관계

성공적 노화는 기본심리욕구($r=.662, p<.001$), 자아통합감($r=.791, p<.001$), 문화역량($r=.780,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기본심리욕구는 자아통합성($r=.701, p<.001$), 문화역량($r=.607,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통합성은 문화역량($r=.74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인 자율성은 성공적 노화($r=.218, p=.005$), 자아통합감($r=.29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유능감은 성공적 노화($r=.665, p<.001$) 자아통합감($r=.686, p<.001$), 문화역량($r=.699, p<.001$)과 관계성은 성공적 노화($r=.641, p<.001$), 자아통합감($r=.667, p<.001$), 문화역량($r=.54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3

3.1.4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347~.550으로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역시 1.819~2.885로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였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 Watson통계량이 1.83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583~2.983으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normality)도 확인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은 통계적 유의미 하였으며($F=138.501, p<.001$).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71.1%의 설명력을 보였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문화역량($\beta=.410, p<.001$), 자아통합성($\beta=.372, p<.001$), 관계성($\beta=.168, p=.003$) 순이었다.

Table 4. Variables Predicting Successful Aging in Elderly (n=164)

Variable	B	SE	β	t	p	R ²	F/(p)
Constant	13.593	5.787		2.349	.020	.722	138.501 <.001
Cultural competence	0.255	0.039	.410	6.507	<.001		
Ego-integrity	0.839	0.160	.372	5.256	<.001		
Relatedness	0.974	0.327	.168	2.981	.003		

Adj R²= .717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Other Variables in Elderly

(n=164)

Variable	Successful Aging	BPN	autonomy	competency	relatedness	Ego-integrity	Cultural competence
	r (p)	r (p)	r (p)	r (p)	r (p)	r (p)	r (p)
Successful aging	1						
BPN	.652(<.001)	1					
autonomy	.218(.005)	.676(<.001)	1				
competency	.665(<.001)	.795(<.001)	.206(.008)	1			
relatedness	.641(<.001)	.866(<.001)	.445(<.001)	.610(<.001)	1		
Ego-integrity	.791(<.001)	.701(<.001)	.291(<.001)	.686(<.001)	.667(<.001)	1	
Cultural competence	.780(<.001)	.607(<.001)	.140(.075)	.699(<.001)	.548(<.001)	.748(<.001)	1

4. 논의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성공적 노화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형태, 학력, 직업, 한 달 용돈,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결혼상태, 건강상태, 동거가족 형태로 나타난 결과와 일부 유사한 결과이다[11,24,25]. 또한 사후분석 결과 70대보다 60대에서, 결혼하여 배우자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그룹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그룹에서, 한 달 용돈이 십만원 이하보다 71만원 이상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답변한 그룹의 성공적 노화가 유의하게 더 높았던 것은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하여 자녀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아 심리적 안정감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형태, 학력, 직업, 한 달 용돈, 건강상태에 따라 성공적 노화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 달리 동일한 측정도구와 일반적 특성을 사용한 Nam과 Cho(2018)의 연구에서는 학력과 건강상태만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11].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와 일반적 특성이라 할지라도 각 연구마다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대상자들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변인 간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7,11].

특히 본 연구와 Nam과 Cho(2018) 연구 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자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결혼상태, 동거가족 형태 등에서 선행연구는 결혼이 110명(82.7%), 배우자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가 107명(80.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130명(79.3%), 배우자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가 124명(75.36%)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령에서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 중 60-69세가 49명(36.8%), 70-79세가 73명(54.9%)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60-69세가 113명(68.9%), 70-79세가 44명(26.8%)으로 연령대별 구성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직업의 유무에서도 선행연구에서 31명(23.3%)이 직업이 있었고, 102명(76.7%)이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87명(53%)이 직업이 있었고, 77명(47%)이 없었다. 이는 결혼상태나 동거가족의 환경이 유사하더라도 연령과 직업 유무에 따라 성공적 노화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연령과 직업적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심리, 문화적 관련 변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수도권외의 대도시와 지역의 일부 소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자를 편의 추출한 반면 선행연구는 지역의 일부 소지역에서 연구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연구대상자가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이 상이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사회·심리, 문화적 관련 변수를 확대하여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하거나 외생변수를 증화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성공적 노화에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와 자아통합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10,11,25], 사회적지지, 자율적인 삶, 자기효능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3,7,12].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욕구로서 인간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결정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의해 일어난다[11,26].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따라 외부 압력에 강요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며, 내재적 동기는 사람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촉진되거나 저해된다[9,11].

따라서 노화 과정에서 노인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과 그 결정에 의한 성공적 적응과 수용의 과정을 통하여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는 내재적 동기에 근거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여 사회·심리적 건강, 성장과 적응, 주관적 만족의 경험과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결정성 행동을 증진시켜 성공적 삶에 이르게 한다[3,8,11,27].

또한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일생을 살면서 사회·심리적 변화 등에 대한 성공적 적응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수용과 만족함으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기다리는 심리적 안녕 상태이다[13]. 노인은 사회·심리적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과정에서 노인 스스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자기결정과 그 결정에 의한 성공적 적응과 수용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된다[11,13,28].

그러므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돕기 위해서는 심리적 측면에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충족을 지원하여 올바른 자기결정성을 높이고, 노인의 자아통합의 과정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성공적 적응과 수용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자기결정성을 높이기 위

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자아통합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 심리적 지원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성공적 노화와 문화역량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문화역량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증가하고, 여가활동의 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18,29].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며 오랜 역사를 통해 학습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높은 행동양식, 지식, 가치, 도덕, 법, 예술 등 사회생활 양식 전체이다. 문화역량이 높은 노인은 건강한 생활양식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관계 단절을 극복하여 심미적 욕구를 충족한다[30,31]. 따라서 노인의 높은 문화역량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지적인 욕구를 줄 수 있으며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어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한다[15,32].

그러므로 문화적 측면에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돕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교육, 심리, 사회복지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연계된 노인문화정책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노인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문화역량($\beta=.410, p<.001$), 자아통합성($\beta=.372, p<.001$), 관계성($\beta=.168, p=.003$) 순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71.7% 설명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변수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중 관계성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성공적 노화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관계성이 0.18 만큼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11]. 이는 한국의 노인이 가족과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미와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경향이 강하고, 노화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기대역할의 변화 등 다차원적 측면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노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1,33].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하는 사회문화·심리적 변인으로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심리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기본심리욕구는 자아통합성, 문화역량과 양이 상관관계가, 자아통합성은 문화역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은 통계적 유의미 하였으며 ($F=138.501, p<.001$).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71.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문화역량, 자아통합감, 관계성 순이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였으며,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심리적 요인과 문화역량 개념에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설명력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인이 문화역량, 자아통합감과 관계성 증진을 통하여 성공적 노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기초한 사회문화·심리적 지원체계 정립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추후연구 위하여 첫째,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문화·심리적 관련 변수를 확대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검증하고,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하거나 외생변수를 증화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연계된 노인 문화정책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tatistics for estimated future population 2017 in Korea [Internet]. Seoul: Statistics for estimated future population:2015 [cited 2019 July 15].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723&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2] H. J. Sa, C. W. Lee & M. J. Kim. (2017).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Participation, Successful Aging, and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5), 511-521. DOI: 10.23949/KJPE.2017.09.56.5.37
- [3] H. Y. Kim & B. K. Chung. (2015). A Research on Demographic Parameters, Life Style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Subjectiv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5(2), 295-313.
- [4] M. J. Kim & K. B. Kim. (2012). Influencing of

-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Middle Aged Adults an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150-158.
DOI: 10.14370/jewnr.2013.19.2.150
- [5] J. H. Oh & J. N. Kim. (2017). The Influence of a Sense of Loss, a Sense of Coherence and Depression on Ego-integrity in the Elderly: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3), 687-710.
DOI: 10.17315/kjhp.2017.22.3.012
- [6] B. J. Jeon. (2017).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Successful Aging by Family Type of Elderly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 *Journal of Wellness*, 12(1), 203-216.
DOI: 10.21097/ksw.2017.02.12.1.203
- [7] Y. J. Jeong, N. Y. Yu, B. A. Kim, H. J. Shin & Y. S. Chong. (2014). A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with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4(4), 781-797.
- [8] E. L. Deci & R. M. Ryan.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 49(3), 182-185.
DOI: 10.1037/a0012801
- [9] R. M. Ryan & E. L. Deci.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10] N. S. Kim. (2014). Effects of Vital Power Based on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Successful Aging in Early Participants of Life Time Sports. [master's thesis]. Cheonan: Dankook University.
- [11] M. J. Nam & Y. M. Cho. (2018).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isdom on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0(1), 70-78.
DOI: 10.7475/kjan.2018.30.1.70
- [12] S. L. Kim & H. O. Oh. (2016).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and Ego Integrity an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6), 509-20.
- [13] G. E. Kim & E. J. Shin. (2016). Ego Integrity of the Elderly - Focusing on Mediator of Self-actualiza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3), 109-136.
- [14] J. S. An., Y. S. Chong & S. G. Seo. (2013).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atured Aging Attitude, Successful Aging, and Psycho-Social Maturation: The Examination of the Matured Ag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127-143.
- [15] E. K. Kim. (2018).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for Enhancing Cultural Competence of the Earl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3), 111-134.
DOI: 10.22251/jlcci.2018.18.3.839
- [16] M. Y. Lee. (2008). Exploratory Research on Cultural Compet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main of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3(2), 111-134.
DOI: 10.15815/kjcaes.2008.3.2.111
- [17] J. U. Ko. (2016). The Senior of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Plans. *Journal of the Global Senior Health Promotion Institute*, 2(1), 27-40.
- [18] H. S. Hong & M. J. Kwak. (2015).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mpact on seniors of Leisure Satisfaction Successful Aging.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 Administration*, 29(4), 199-213.
DOI : 10.18398/kjlgas.2015.29.4.199
- [19] M. H. Kim & K. R. Shn. (2005).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2), 35-52.
- [20] Y. S. Jung.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Sensation Seeking, Flow, and Exercise Addiction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master's thesi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21] S. G. Kwak, M. J. Kim & H. Y. Ahn. (2014). Lifelong Learning and Happiness index in Seodaemun-Gu Citizen. Seoul: Seodaemun-Gu: 2014.
- [22] J. S. Kim. (1989). A study of Social Activities and Ego Integrity of the Aged. *Health & Nursing*, 1(0), 20-31.
- [23] E. H. Park. (2016). Mediating Effects of Ego-Integ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of Elders and Successful Aging; Focused using Senior Welfare Cent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 [24] K. W. Sung. (2011). Relation of Successful Aging and Wisdom in Korean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3(1), 48-57.
- [25] A. L. Kim. (2013). The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go Integrity on Successful Aging of Elders -Focused on the Elderly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4), 2041-2054.
- [26] E. L. Deci & R. M. Ryan. (2004). Avoiding Death or Engaging Life as Accounts of Meaning and culture.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73-477.
- [27] S. S. Kim. (2015). The Structure Relationship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Life Goal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9(1), 1-25.
DOI: 10.17286/KJEP.2015.29.1.01
- [28] V. H. Alain & M. Vansteenkiste. (2009). Ambitions Fulfilled? The Effect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 Attainment on Older Adults' Ego-Integrity and Death Attitud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8(1), 27-51.
- [29] Y. M. Shon. (2014). Impact of perceived cultural competence on industrial performances and the

quality of lifes for residents through creativities and publicness. [master's thesi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30] H. J. Lee. (2017). The Effect of the Senior education program on cognitive and affective domain: Meta-analysis, focused on domestic journal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3(1), 1-30.
- [31] H. S. Lim. (2017).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on Solving Depression for The Elderly of Low Income Class.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6(1), 265-282.
DOI:10.20497/jwce.2017.6.1.265
- [32] H. K. Han. (2018). Effects of the Elderly's Human, Economic and Cultural Capitals on Successful Aging: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Engagement in Social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8(4), 981~997.
DOI: 10.31888/JKGS.2018.38.4.981.
- [33] Y. J. Jeong & J. S. An. (2010).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on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2), 535-550.

조 영 문(Young Mun Cho)

[정회원]



- 2004년 3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08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1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9년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 순환기계 만성질환
- E-Mail : cymun@dsu.ac.kr

강 승 량(Seung-Lang Kang)

[정회원]



- 2010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학사)
- 2016년 2월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9년 8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수료)
- 2019년 현재 : 한려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 만성질환, 건강증진
- E-Mail : tmdfkd1495@naver.com